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의 대화적 세미오시스*

– 퍼스의 자아와 해석체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희**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문화적 맥락화와 문화 기호
 1. 문화적 맥락화와 실제적 추상화
 2. 퍼스의 자아와 인지이론
- III.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의 대화적 세미오시스
 1. 퍼스의 기호 개념과 해석체
 2. 리코르의 번역이론과 대화적 세미오시스
 3. 상징과 논리적 해석체
- IV. 결론을 대신하여: 주체성에서 자아성으로

국문초록

본 논문은 퍼스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21세기 문화와 자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탐구는 문화적 경험을 구조화함으로써 주체가 “가능성의 드라마”를 쓰는 기호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객관적 시각에서 해석해야 할 상징과 습관으로서의 문화는 주관적 시각에서 자아를 구성하기 때문에 문화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기호 과정은 자아-해석과 이해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와 자아는 상징과 습관을 매개로 연결되어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한다. 이 가설을 적용하여 본 논문은 “행위주체(agent)”로서의 자아의 개념과 기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6A3A01097826); 이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단독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 연구소/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부교수, moreena@hufs.ac.kr

과정에서 해석체의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의 대화적 세미오시스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지각 경험과 자아 개념에 기초해 규정되지 않은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자질이 문화적으로 맥락화되는 과정을 퍼스의 실재적 추상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퍼스의 기호 개념을 기호-대상-해석체의 삼원적 관계에 기반을 둔 무한한 기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의 삼원적 관계에서 고찰하며, 문화적 맥락에서 리쾨르의 번역이론을 세미오시스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해석 행위주체로서 기능하는 자아의 개념을 통해 문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 대화적 세미오시스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화적 세미오시스 모델링을 통해 상호인정과 문화 돌봄에 기초한 문화적 자아들의 가치창조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적론적”세미오시스의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열쇠어 : 논리적 해석체, 문화 해석, 맥락화, 번역, 삼원적 관계, 상징, 자아성, 행위주체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TV 예능프로그램 《한국인의 식판》을 보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학생들에게 K-급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한 장면을 언급하자면 이렇다. 급식 메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식팀의 구성원인 영국인이 생선커틀릿의 맛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느낌 1도 없어요.”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영국인에게 “한국 느낌”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이 떠올랐고, 뒤이어 드는 생각은 ‘한국인인 나는 “한국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였다. 직접적으로 외국을 경험해 본 후에야 자국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고 우리는 흔히 말한다. 안에서는 습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동일시의 태도로 자국의 문화를 바라보지만, 바깥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자국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글로벌 한류 문화는 안과 밖의 자리바꿈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재인식(re-cognition)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안팎의 상호적 인식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퍼스 기호학적 접근에서 문화 연구를 위한 모델로서 대화적 세미오시스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퍼스의 자아와 해석체 개념을 중심으로 기호 과정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문화와 자아의 관계를 해석 행위주체(interpreting agent)를 매개로 한 인지적 과정에서 설명한다. 다시 말해 대화적 세미오시스 개념은 경험주체가 문화적 자질을 맥락화하여 사고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를 대화적 세미오시스 과정에서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와 자아가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각 경험과 자아 개념에 기초해 규정되지 않은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자질이 문화적으로 맥락화되는 과정을 퍼스의 ‘실재적 추상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다시 말해 추상적 자질이 어떻게 행위주체로서의 자아를 통해 문화적으로 맥락화되는지를 설명한다. 퍼스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문화 연구는 문화 안에 거주하는 경험 주체의 자아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아는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에 따라 의식과 느낌의 경험 주체로서의 나, 지각 경험을 기술하고 추론하는 개별적인 나, 의미와 진리를 탐구하는 일반적 사고로서의 나로 구별되지만, 세 모드의 자아는 분리되지 않고 연속성을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맥락화 과정을 퍼스의 자아 개념 및 인지이론과 함께 살펴본다. 둘째, 본질에서 대화적이며, 일반성을 지닌 퍼스의 기호 개념을 기호-대상-해석체의 삼원적 관계에 기초해 살펴보고, 무한한 기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의 삼원적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에서 리코르의 번역이론을 세미오시스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해석 행위주체로서 기능하는 자아의 개념을 통해 문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 문화와 자아의 관계에 기초한 대화적 세미오시스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화적 세미오시스 모델링을 통해

상호인정과 문화 돌봄에 기초한 문화적 자아들의 가치창조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적론적”세미오시스의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II. 문화적 맥락화와 문화 기호

“한국적”이란 어떤 자질/느낌일까? 한국 사람이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적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외국 사람이 동일한 음악을 한국적이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은 그 음악이 지닌 동일한 한국성을 느끼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지각 경험주체와는 무관하게 문화적 대상으로서 그 음악은 “한국성(Koreaness)”이라는 객관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의 유명한 논문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1974)에서 객관적 현상학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객관적 현상학에 대한 퍼스의 견해는 CP 1.312에서 확인된다. 퍼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진홍색을 트럼펫 소리와 유사한 것으로 경험한다는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풀어 이야기하면, 시각장애인은 그 색을 온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다른 일반적 기술로 재현할 수 있다(Atkins 2018:7장).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상상행위에서 정신의 다이어그램은 “진홍색은 트럼펫 소리와 같다”라는 기호 문법을 통해 기술된다.

1. 문화적 맥락화와 실재적 추상화

퍼스의 현상학은 실증 과학으로서 가능성으로서의 자질을 표현하는 개별적 다이어그램을 통해 실증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식/느낌에 경험되는 현상(phaneron)과 이를 기술하여 추론하는 것은 각각 현상학(phaneroscopy)과 기호학(semiotic)으로 구분되며, 현상학은 기호학에 앞선 과학이 된다. 기호학(논리학)의 방법(기호문

법, 비판, 일반수사학)을 통해서 현상의 자질(비결정적인 추상적/일반적 자질)이 결정된다(determined). 즉 추상적/일반적 자질이 기호 문법에서 맥락화를 통해 구체적 성질로 이행한다.

네이글의 논문에서 제기되는 “객관적 현상학”의 문제는 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기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Atkins 2018:206).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진홍색’(사고 대상/설명해야하는 대상/기호의 대상)은 ‘트럼펫 소리’로 개념화된다(서술된다/설명된다). 바꾸어 말하면 상상을 통해 진홍색은 (다른 자질이 아닌) 트럼펫 소리의 자질로 추상화(precision)되고 (EP2:352), 이 추상적 개념은 ‘진홍색은 트럼펫 소리와 같다’로 기술되면서, 실제적 추상화(hypostatic abstraction)¹⁾로 구체화된다. 추상적 개념, 곧 트럼펫 소리는 진홍색이라는 주어를 통해 맥락화됨으로써 구체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네이글이 객관적 현상학이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색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점을 기술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이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색을 개념화하여 이해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퍼스식으로 말하면, 개념화 과정은 진홍색을 보는 것과 트럼펫 소리를 듣는 두 감각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매개로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을 보여준다(Atkins 2018:7장).

지각 경험 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의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개념화하는 과정은 상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머릿속 상상은 주관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요소를 지니며,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행위가 불가능한 가설적 행위이다. 하지만 경험 주체의 상상이 다이어그램(개별 기호)로 기술되면서 가능성의 자질로서 추상적 개념은 객관적인 분석의

1) 퍼스는 추상적 자질을 말의 맥락화를 통해 사고/기호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실제적 추상화로서 설명한다. 지각 작용에서 주의집중을 통한 추상적 자질(sweetness)이 실체(thing)/주어(subject)에 귀속됨으로써 실제적 추상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꿀이 달다’라는 명제는 ‘꿀이 달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변형된다. 그러므로 실제적 추상화는 명제 단위에서 고려할 수 있다(CP 4.235).

대상이 된다.²⁾ 현상에 대한 지각 경험과 이를 기술하여 추론하는 차원은 현상학과 기호학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식/느낌으로 경험되는 현상은 “진홍색은 트럼펫 소리와 같다”라는 다이어그램으로 기술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 구성된다. 따라서 진홍색의 자질과 그것을 재현한 새로운 어휘인 트럼펫 소리의 자질은 의미론적 유사성이라는 지각 내용을 갖는다.

자기 자신(one's self)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문화(one's culture)를 이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지각적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관찰하고 추론하여 자아를 의식하는 것처럼, 경험 주체는 문화적 맥락화에 기초해 지각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개념화 과정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한국성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나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self)’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성(Koreanness)’의 개념이 필요하다. 자아 개념을 통해 고유한 개별자로서 자신에 대해 사고하듯이, 한국성의 개념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에 대해 사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성의 개념은 문화 기호에 재현된 설명되어야 할 문화적 대상³⁾을 서술하는/설명하는 기호가 된다. 서술어로서의 한국성의 개념은 다시 문화적 맥락과 조건에서 사고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어휘로 재현/번역되어 설명되면서 무한한 기호 활동

2) 퍼스는 현상을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 서술어를 체현하는 도상 또는 도식적 이미지이며, 이러한 도상의 관찰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반적 서술어를 구성하게 된다”(EP 2:303). 따라서 다이어그램에서 관찰과 추론을 통해 추상적 개념은 새로운 구체적 개념으로 변형된다.

3) 퍼스의 기호 이론에서 대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대상은 직접적 대상으로 기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동적 대상으로서 기호 외부에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손처럼 기호 과정 전체를 이끄는 원인으로 작동되는 힘이다(EP 2.232; Liszka 2019:70-71).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대상은 주어에 재현된 역동적 대상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논리학에서 주어는 지표 기호로서 외부세계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장에서의 주어와 다르게 설명된다. 이 때문에 한 문장에서 한 개 이상의 주어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주관/주체는 구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주어가 사람일 경우 주관은 주관적 관점을 재현하고, 주체는 객관적 관점을 재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번역 주체와 관련하여 주체와 주관의 구별에 관해서는 사카이 나오키의 『번역과 주체』(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 4장을 참고하라.

이 이루어진다.

2. 퍼스의 자아와 인지이론

퍼스의 초기 자아 개념은 부정적인(negative) 측면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경험 주체는 자기(ego)와 비자기(non-ego)간의 관계에 기초한 이중의 식에서 자기-주장(self-assertion)의 형태로서 자아(self)를 의식하고(EP 2:4), 언어를 매개로 한 타자의 경험을 통해 무지와 오류로서 드러나는 자아를 의식한다(EP 1:19-20). 하지만 후기의 자아 개념은 실증적인(positive)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닌 개인성(personal identity)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체는 기호 과정에 참여하는 해석행위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인격적 자아(personal self)로서 이해된다(Colapietro 1989:5장;1987:307;이윤희 2017:86-94).

퍼스의 자아 개념을 문화에 유추적으로 적용하면, 타문화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충격으로 인해 자기-주장으로서 자문화를 의식하게 되거나, 혹은 타문화와의 관계에서 변증법적인 가치를 통해 자문화에 대한 자각이 나타난다. 이는 자극과 반응의 이원적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자문화를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자아 개념을 적용하면, 일관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지닌 자문화는 반응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문화로, 타문화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타문화의 관계에서 발전한다.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은 자아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달렸다. 퍼스의 후기 자아 개념은 실용적, 기호학적 관점에서 문화 연구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일관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기호적 자아는 기호 활동의 삼원적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해석 행위주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적 자아는 세미오시스 과정에서 확인되며, 무한한 기호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점에서 퍼스 기호학적 접근에서 본 문화 연구는 문화적 대상이 표현된 혹

은 재현된 문화 기호를 해석하는 활동에서 주체가 기호의 대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 관한 기술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자아는 자아성(selfhood)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성이 사고의 대상으로 경험되기 위해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 이유는 퍼스의 인지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EP 1:11-27). 퍼스에 따르면, 우리는 내성(introspection)의 능력이 없다. 하지만 내부 세계의 모든 지식은 외부 세계의 사실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가설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나온다. 한국성의 내적 자질은 추상적인 일반적 개념으로 그것이 외부 세계의 대상에 의해 확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개념으로 변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성”이라는 추상적 자질은 ‘이 생선커틀릿의 맛은 한국적이다’라는 사실을 가설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이해가능하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에서 지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생선커틀릿’을 매개로 한국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직관의 능력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인지는 논리적으로 이 전의 인지들로 인해 결정된다. 퍼스의 인지 이론에 따르면, 직관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소방대원의 인지, 즉 논리적으로 전제 없이 즉각적인 판단(결론)이 가능한 인지는 직관의 힘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설명된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 생선커틀릿의 맛이 한국적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이전의 인지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성과 직관의 능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가(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중재하는) 기호 없이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과 또한 완전하게 인지 불가능한 개념은 없다는 점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한국성”이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 기호를 중재로 인지된다는 점은 한국성의 개념이 무한한 해석과 번역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를 통해 재인식되고, 변형되면서 발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한국성을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문화 기호는 자연 기호⁴⁾와는 달리 어

4) 자연 기호는 대상을 표현하고, 가리키면서 인간의 정신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

떤 측면이나 맥락에서 어떤 것을 대신하여 누군가(정신)에게 말을 거는 기호이다(CP 2.228). 문화 기호를 매개로 하는 기호 활동은 이런 점에서 대화 상대자로서 해석체(해석자)가 필요한 상징기호, 즉 해석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기호이다. 따라서 상징을 매개로 하는 행위는 일반성에 기초하여 대화하는 행위, 혹은 가치와 의미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 기호는 이런 점에서 가능성의 형태로 한국성을 내장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의 자질이 사고의 대상으로서 개별기호에 재현되어 개념화(서술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서술어 개념이 기호와 해석체 간의 대화적 과정에서 다시 사고의 대상이 되면서 무한한 해석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석 모델이 “대화적 세미오시스”로 정의된다. 퍼스의 세미오시스 개념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표상체로서 상징기호는 퍼스의 상징개념에 따라 일반성에 기초하지만, 이는 실제성에 기초한 지표와 가능성이 내장된 도상과 연결되어 작동된다(EP 2:300-324). 따라서 문화 기호 모델은 상징과 의미의 체계로서의 문화의 법칙이 재현된 법칙기호로 나타나고, 문화적 대상을 재현한 개별기호로 나타나며, 일상의 삶에서 느낌의 습관으로서 자질기호로 나타난다. 다스톤(Lorraine Daston)은 모델은 규칙 혹은 법칙으로서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델”로서의 규칙이 “알고리즘(algorithm)”으로서의 규칙으로 변화하면서 그러한 연결고리가 붕괴되었다고 진술한다(Daston 2022:21). 알고리즘으로서의 규칙은 사슬고리처럼 개체와 개체가 인과관계로 연결되며 전체와의 연결이 결여된 부분 간의 논리적, 기계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델로서의 규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결하며, 인간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변증법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제약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며 창조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상징과 의미의 체계라고 할 때, 문화의 법칙은 언어 상징에서처럼 언어구조가 아니라, 가능성과 실제성을 포함하는 퍼스의 상징개념에 따라 경험적 차원에서

호로서 바람, 해바라기, 풍향계와 같은 기호를 들 수 있다.

작동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논리는 감정과 사회적 관계에 기초해 문화적 경험을 배우는 경험으로 변형하는 합리적인 자아-통제적 행위를 통해 미학적 자유를 허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공동체에서 문화 기호가 상징과 의미의 체계를 재현하는 모델로서 인식되고, 문화 기호 해석과 번역의 실천을 통한 모델링의 조건에서 문화와 자아 혹은 자아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Ⅲ.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의 대화적 세미오시스

앞의 기술에서 21세기 문화 기호가 상징과 의미체계를 재현하는 “모델”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다스톤에 따라 모델의 개념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성격을 지닌 기호로 설명되었다. 문화 기호는 어휘, 문장, 텍스트 차원에서 작동한다. 어휘, 문장, 텍스트는 기호와 해석체의 관계에 기초한 세 종류의 사고-기호이며, 이를 퍼스의 용어로 설명하면, 첫째, 림(형), 즉 어떤 것을 대신하는 단순한 기호로 그 자체로 어떤 성격을 지니며, 이는 기호의 물질적 자질(material quality)로 불린다(EP1:39). 따라서 세 철자로 만들어진 단어 “man”을 보거나 들을 때, 습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 단어의 ‘개념’ 혹은 의미를 떠올린다. 둘째, 디시사인(명제), 즉 정보적 기호는 한 기호가 자신과 동일한 대상을 재현하는 다른 기호와 계사에 의하여 연결되는 기호이다. 즉 한 기호가 다른 기호를 매개로 그것의 대상과 연결된다.⁵⁾ 이는 기호의 순수한 지시적 적용으로 이해된다(EP1:40). 따라서 예를 들어 서술어 (달다)는 자신과 동일한 대상을 재현하는 주어(꽃)와 연결되어야 이해될 수 있다(‘꽃이 달다’). 또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에 풍선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손을 매개로 ‘풍선’(추상적 자질)이 대상과 연결

5) 풍향계에서처럼 기호는 직접적으로 대상에 연결될 수 있다(EP 1:40).

된다. 그러나 상징의 재현 기능은 기호 그 자체나 혹은 기호가 대상에 연결되는 것에 있지 않고 사고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두 차원의 기호는 사고를 다루지 못한다. 하지만 앞의 예에서 아이가 “풍선이 뭐예요?”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커다란 비눗방울 같은 거란다”라고 응답하면서 그 풍선의 이미지를 상징으로 만든다(EP 2:275). 셋째, 논증 즉 설득의 기호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두 명제(사고)와의 관계에서 제3의 명제(사고)가 도출되는 삼단논법의 논증(argument)이다 (EP 1:39-40; de Waal 2019:146-148). 논증은 상징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연역, 또는 귀납, 또는 가추적 추론이다. 따라서 논증은 상징과 해석체 사이의 대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사고-기호로서의 상징은 개념(도상)과 사건으로서의 사고(지표)의 구성요소를 갖는 복합기호이며, 상징을 매개로 대상의 재현이 뒤에 이어지는 재현이 되는 사고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무한한 기호과정이 이루어진다.

1. 퍼스의 기호 개념과 해석체

기호 활동의 세 주체, 즉 기호, 그것의 대상, 그것의 해석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셋은 삼원적 조건에서 상호의존적인 삼각적 관계에 놓인다. 퍼스의 기호 관념은 철학적 관점에서 재현(representation)으로 이해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생산하거나 한정하는 관념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대신한다”(CP 1.338). 또는 “기호는 외부에서의 어떤 것을 정신에 전달하는 전달체이다”(CP 1.338). 이때 “기호가 나타내는 것을 기호의 대상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전달하는 것을 기호의 의미라고 부르며, 그것이 발생시키는 관념을 기호의 해석체”라고 부른다 (CP 1.338). 이 세 요소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현의 대상이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점이다. 즉 첫 번째 재현이 해석체가 되고, 이 해석체가 다시 재현되는 방식으로 연속해서 재현이 일어나며, 각각의 재

현은 그 뒤의 재현이 되며 완전한 대상은 그것의 한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재현의 의미도 또 다른 재현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무한한 재현의 과정을 퍼스는 불필요한 옷을 벗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옷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다고 은유적으로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석체는 또 다른 재현으로서 거기로 진리의 횃불이 건네진다. 이러한 무한의 기호 과정은 재현의 대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CP 1.338).

기호 관념을 기호와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닌 기호와 그것이 결정하는 해석체와의 관계를 토대로 살펴본다. 퍼스는 삼중으로 된 두 구별된 해석체에 대해 설명한다. 직접적-역동적-최종적 해석체(immediate-dynamical-final interpretant)와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emotional-energetic-logical interpretant)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자의 삼중 해석체는 기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로서 기호와 해석체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직접적 해석체는 가능성에 존재하는 추상화”이며, “역동적 해석체는 단일한 실제적 사건”이고, “최종적 해석체는 그 실제적 해석체가 도달하려는 해석체”이다(SS6: 111). 한편 후자의 삼중 해석체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해석자에게 기호의 의미 있는 효과로 나타나는 해석체이다(Greenlee 1973:117). 따라서 감정적 해석체(emotional interpretant)는 “기호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de Waal 2019:138)이며, 활력적 해석체(energetic interpretant)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주의력을 발동시키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개별적인 행동”(ibid.)이며, 논리적 해석체(logical interpretant)는 “사고, 또는 다른 일반적 기호, 또는 형성되거나 수정된 습관이다”(CP 5.486). 두 종류의 삼중 해석체 사이의 관계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그 둘은 경쟁할 수도, 환원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결합할 수 있는, 상보적 관계로 본다(de Waal 2019:139; Schmidt 2022).

6) SS는 *Semiotic and Signif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Charles S. Hardwick. ed., Bloomington, 1977)을 가리킨다.

따라서 역동적 해석체와 연관하여 삼중의 해석체,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를 고찰한다.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논리적 해석체”를 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대화적 세미오시스를 21세기 문화 해석 모델로서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는 논리적 해석체를 중심으로 세미오시스 개념을 정의한다. 두 주체 사이의 역동적 행동이나 서로에 대한 영향이 이원적이 아니라, 삼원적 관계에 기초한 세 주체, 곧 기호, 기호의 대상, 기호의 해석체가 협력하며, 이러한 삼자적 관계의 영향은 어떤 식으로도 짝으로 된 둘 사이의 행동으로 분해가능한 것이 아니다(CP 5.484). 이러한 세미오시스 개념에 따라 논리적 해석체는 활력적 해석체의 효과이자, 활력적 해석체는 감정적 해석체의 효과이다(CP 5.486). 가령 사과파이를 원하는 감정이 사과파이를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과파이를 먹는 생각은 즐거움의 효과로 나타난다.⁷⁾ 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논리적 해석체는 기호의 의미로서, 이는 수립된 해석의 규칙으로서 습관으로 이해된다(cf. CP 5.494). 퍼스는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지닌 논리적 해석체에 관심을 두고 세미오시스 과정을 설명한다. 세 주체, 즉 기호, 기호의 대상, 기호의 해석체가 협력하여 삼원적 조건에서 작동되는 발생 가능한 세미오시스의 본질적인 성격과 근본적인 다양성의 교리로 이해되는 기호학(semiotic)은, 퍼스 자신이 고백하기를, 개척자에게는 그 영역이 방대하고 연구하기에는 힘든 노력이 든다고 진술한다(CP 5.488).

7) 물론 모든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동이 사고나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퍼스의 논리학은 숙고하는 사고(deliberate thinking)에 대한 이론이다. 여기서 숙고가 함축하는 바는 통제된 사고로서 목적이나 이상에 부합하는 통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CP 1.573). 그러므로 습관은 수정될 수 있으며, 세미오시스 과정은 이런 점에서 합리적 자아통제적 행위를 통한 목적론적 성격을 갖는다.

2. 리코르의 번역이론과 대화적 세미오시스

리코르는 『번역론』에서 “번역 욕망(désir de traduire)”과 “동일성 없는 등가(equivalence sans identité)”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재번역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번역가의 과제가 두 주인(저자와 독자)을 섬겨야 하는 고된 작업이라고 기술한다(Ricoeur 2006:133-157). 퍼스의 해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리코르의 번역 개념을 경유하는 것은 퍼스에게 해석은 큰 맥락에서 번역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며(CP 4.127; 4.132), 추상적 일반성이 개별적 사건과 행동에서 인지되고, 이것이 문화적 맥락에서 개념화를 통해 일반화되는 과정이 무한한 해석/번역 활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리코르가 언어적 차원에서 내적 번역(동일한 언어 사이)과 외적 번역(타언어와 모국어 사이)을 이야기했다면, 퍼스는 기호적 차원에서 즉 상장을 매개로 내적 번역⁸⁾과 외적 번역⁹⁾에 관해 기술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호 내적 문화번역이 시간적 차원에서 자기반성을 통한 자아-해석이라면, 기호 외적 문화번역은 공간적 차원에서 타자를 통한 자아-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내 안에 타자로서의 미래의 자아, 그리고 타문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퍼스의 대화적 기호 활동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된 퍼스의 세미오시스 개념을 리코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8) 기호 내적 번역의 경우, 한국 문화에서 장애인 인식 변화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자성과 재현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식하는 틀에서 벗어나 장애인문화 및 장애문화정체성 등의 장애 문화 운동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기초한 문화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행하며, 장애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9) 기호 외적 번역의 경우, 외국인 아미팬덤의 정치적 실천과 참여를 문화번역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타자성에서 자아성을 발견하고, 타자와 자아 사이의 ‘동등한 가치’를 새로운 개념과 어휘로 표현하는 기호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팬덤문화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음악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번역행위가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번역론과 함께 살펴보고, 문화 해석과 소통 모델로서의 그것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퍼스 기호학에서 모든 기호는 존재하기 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CP 2.308). 다시 말해, 모든 기호는 해석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석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기호 번역의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다. “기호는 그 자체를 더 발전된 다른 기호로 번역하지 않는다면 기호가 아니다”(CP 5.594). “의미의 개념화 과정은 그것이 처음 수용될 때, 다른 기호 시스템으로의 기호 번역이다”(CP 4.127). “기호의 의미는 번역되어야 하는 그 기호이다”(CP 4.132). “모든 사고-기호가 연속해서 번역되거나 해석되어야 하는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CP 5.284). 이러한 진술은 기호 해석의 무한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해석체가 재현으로서 다른 체계에서 다시 기호가 되는 번역의 무한한 과정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퍼스는 삼중의 해석체를 두 종류로 구별하였는데, 한 종류는 기호에 내재된 직접적 대상에 대한 해석체라면, 다른 종류는 기호가 재현하는 역동적 대상을 해석과정에서 해석체가 기호의 의미 있는 효과로 해석자에게 나타나는 해석체-기호이다. 따라서 퍼스의 해석체(interpretant) 개념은 해석자(interpreter)와는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Greenlee 1973:9, 26-27). 심리학적 측면에서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는 각각 느낌, 행동, 사고의 해석체-기호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움직임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움직임이 없듯이 ‘우리 안에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안에 우리가 있다’(CP 5.289n1)고 이해된다. 이를 토대로 세미오시스 과정에서 논리적 해석체가 감정적-활력적 해석체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상징과 의미체계로서의 문화, 더 나아가 논리적 해석체의 본질인 습관으로서의 문화를 살펴본다.

리코르는 『번역론』에서 번역불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번역을 지속하는 현상을 “번역 욕망”을 통해 설명한다(Ricoeur 2006:114). 퍼스에 따르면 욕망은 추상적인 일반성을 지니며, 이는 가능성의 자질(추상성과 모

호함)로 재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의 자질 (단일한 개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종류의 특정한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경험 주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여기, 이곳에 실제성으로 재현된다. 그러므로 가능성으로서의 자질은 이를 경험하는 대상인 객체로서의 내가(Me) 없다면,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성으로서의 욕망은 가능성의 자질, 즉 자질 기호로서 직접적 해석체를 함축하고 있다. 즉 “모든 기호는 해석자 이전에 그 기호의 특정한 해석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함축”(SS:111)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직접적 해석체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퍼스의 예¹⁰⁾를 들어 설명하면(CP 1.341), 사과파이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해석자 이전에 ‘욕망’이라는 자질기호(qualisign)에 함축된 해석가능성인 직접적 해석체가 그 자질을 경험하는 대상인 나(Me)에게 ‘사과파이를 만든다’(개별기호, sinsign)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재현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욕망은 가능성의 자질로서, 특정 사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욕망되어지는 것이다. 퍼스에 따르면, 이때 내 머릿속의 사과파이는 특정한 사과파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사과파이이며, 사과파이를 만드는 상상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특정 사과를 사고, 조리법에 따라 사과파이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법칙기호 legisign). 다시 말해 욕망이라는 추상적 일반성은 ‘나’의 머릿속에 ‘사과파이’가 주는 느낌과 그것을 만드는 생각으로 경험되고, 경험 주체는 신체적 노력을 통해 사과파이를 만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법칙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언급했던 알고리즘의 논리가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이 연결되는 모델로서의 논리를 보여준다. 이 같은 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삼중의 해석체, 즉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의 활

10) 퍼스의 사과파이 예는 욕망의 일반성이 개별기호에 재현된다는 점을 설명한다(CP 1.341).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세미오시스 과정의 연속성, 즉 감정적-활력적-논리적 해석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동은 무한한 세미오시스의 과정을 추동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재현과 일반성에 기반한 퍼스의 욕망 이론과 리콥르의 “번역 욕망”개념을 연결하여 문화번역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성에 기초한 퍼스의 욕망 이론은 문화적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될 때 적용가능하며, 따라서 문화 번역은 문화 기호가 재현하는 문화적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번역하는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왜 우리는 문화를 번역하는가?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이항 대립은 무화된다. 문화의 논리가 언어의 문법(규칙)을 넘어서 일반성을 지향하며 창조적 과정을 내포하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결하는 모델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호와 해석체 사이의 대화적 세미오시스 모델은 문화 활동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만들며,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 연구의 방향성은 자아와 공동체의 관계를 고찰하고, 보편성과 특수성이 연결되는 문화의 논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문화적 맥락에서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에,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류세 담론의 확산 및 기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과의 공존 등 자연과 기술의 문제를 숙고하는 문화에서 자아가 발전할 수 있다. 퍼스의 대화적 세미오시스 모델링을 통해 개인과 개인, 문화와 문화 간의 관계를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아닌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적, 철학적 인간학을 토대로 인간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설명하는 논리를 통해 문화 속의 자아, 즉 문화적 자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차원을 퍼스의 도상기호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리콥르의 “동일성 없는 등가”라는 개념을 퍼스의 기호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본다. 리콥르에 따르면, 번역 불가능성은 비교 불가능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콥르는 번역가능한 것

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은 ‘비교가능한 것의 구성’에 있다고 말한다(Ricoeur 2006:145-151). 이 말은 번역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전제로 한 언어체계에서 다른 언어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성 없는 등가”의 의미는 퍼스의 도상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두 체계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다. 스테른펠트(Frederik Stjernfelt)는 타입과 토큰의 성격을 지닌 관계적 이미지로서 다이어그램의 도상성에 주목하고, 이를 기호의 대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지 작용의 작동 원리로서 설명한다(Stjernfelt. 2007: 4장).

문화적 맥락에서 개념을 의미화하는 과정은 해석 주체의 개별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활력적 해석체에 의해 가능하다. 리코르가 언급하는 비교 가능한 구성의 예는 앞서 설명된 ‘진홍색이 트럼펫 소리와 같다’라는 구조에서 드러난다. 이 기술은 도상성에 근거한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동등한 가치가 새로운 어휘로 번역된 인지과정, 혹은 실재적/주체적 추상화(hypostatic/subjectal abstraction)를 보여준다(CP 4.235; 4.332; 5.449; 5.455). 이 과정에서 경험 주체가 추상적 개념을 외부의 대상에 사과의 주어로 적용, 확장, 표현하여 두 주어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경우, 기호의 윤리적 차원이 대두된다(CP 5.534-537).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력적 해석체는 자질의 느낌이 해석자에게 개별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인접성에 근거하여 개별적 대상에 추상적 개념을 적용, 확장하는 것은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추상적 개념이 대상에 적용될 경우, 잘못된 지각적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전제를 통해 잘못된 결론으로 도출되는 나쁜 추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역동적 대상(dynamical object)과의 관계에서 숙고하는 주체(deliberative subject)의 합리적인 자아통제적 행위가 요구된다.

3. 상징과 논리적 해석체

논리적 해석체는 느낌과 행동이 아닌 지능의 측면(담론적 측면)에서 사고, 혹은 일반적 기호, 혹은 습관으로서 특징지어진다. 논리적 해석체는 상징과 해석체의 관계가 활성화되는 단계로서 무한한 기호 과정을 발생시킨다. 이는 리콥르가 말하는 번역이 지속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앞서 퍼스가 대상에 대한 욕망을 일반성과 재현의 개념으로 설명하듯이, 그는 우주가 가진 수수께끼는 그것의 일반성에 있다고 추측한다. “우주에는 세 요소가 작동하는데, 즉 우연성, 법칙, 습관 형성(habit-taking)”이 그것이다(CP 1.409). 사고-기호로서의 인간은 상징을 매개로 소통한다. 즉 상징은 인간의 사고/정신에 말을 거는 기호이다. 그런데, 상징의 본질적 요소는 해석자가 아니라 해석체이므로,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인간 발화자의 의도가 아니다(de Waal 2019:139). 해석 주체인 인간은 참여적 관점을 통해 기호 과정의 한 요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일반적 기호 혹은 사고, 혹은 습관으로서의 논리적 해석체는 모두 일반성을 토대로 작동되는 기호이다. 따라서 정신 안의 기호로서 기호와 해석체 간의 대화 과정에서 의미가 발견된다. 즉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자아로 해석되며 의미가 발견되는 과정이다. 기호와 해석체가 자리바꿈의 대화를 통해 무한한 해석과정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경우를 기호 내적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아와 타자, 즉 발화자와 해석자에게 내장된 논리적 해석체는 각각 의도적 해석체(intentional interpretant)와 효율적 해석체(effectual interpretant)로서 둘의 대화적 기호 과정을 통해 공통의 해석체(cominterpretant)가 생산된다(Liszka 2019:184-185). 우리는 이 경우를 기호 외적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발화자와 해석자는 상충하여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성이 체현된 개별자이자 추상적 자질이 내장된 해석 행위 주체로서의 자아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둘의 대화적 관계는 변증법적

가추를 거치면서 규칙에 기초한 습관 형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전한다. 리콥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기호 외적번역은 상호인정, 혹은 서로를 재인식하는 과정으로서 타자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는 “상징이 성장한다”(EP 2:9)라고 단언한다. 이 말이 함축하는 바는 상징과 의미체계로서의 문화 속에서 문화 공동체 구성원은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 그것의 의미를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퍼스에 따르면, 상징은 상징을 사용하는 정신의 관념을 매개로 대상과 연결되는 기호이다. 퍼스가 언급한 바대로, 상징은 다른 기호들에서 발전되면서 존재하는데, 특히 닳음, 또는 닳음과 상징의 성격을 가진 혼합된 기호에 의해서이다(EP 2:10). 인간이 기호를 매개로 사고한다고 할 때, 이 같은 정신의 기호들은 혼합된 성격을 지닌다. 퍼스는 그 기호들에서 상징-부분을 개념이라고 부른다. 퍼스가 주장하는 바는 새로운 상징은 개념을 포함한 사고에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오직 상징에서만 새로운 상징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퍼스는 이러한 상징의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사람들이 상징을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상징의 의미도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권력, 법칙, 부, 결혼 등의 단어는 사람들에게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경험된다(EP2:9).

가능성의 자질, 혹은 관념으로서의 욕망(자질기호)과 이것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대상을 통해 경험되는 실제적 사건들(개별기호)을 토대로 추상적 개념이 일반적 개념(법칙기호)으로 결정되며 의미를 얻는 과정을 통해 상징이 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징과 논리적 해석체가 작동하는 세미오시스 모델은 문화의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서 자아의 개념은 리콥르의 자아 이론에 따라 동일성(sameness)과 자아성(selfhood)¹¹⁾의 변증법을 통한 문화적 자아들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1) 리콥르의 정체성 이론에서 두 모드의 정체성, 즉 동일성에 기초한 정체성과 자아성에 기초한 자아-정체성에 관해서는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The

IV. 결론을 대신하여: 주체성에서 자아성으로

우리는 왜 문화 그리고 문화 해석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문화 해석과정을 통해 타자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자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콥르는 완전한 타자, 즉 ‘본질적인 자’는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고, 단지 한 문화 안에서 간접적으로 지각가능하며(Helenius 2016:202), 이에 따라 완전한 타자를 근접하게 표현하는 조건으로서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단언한다(Helenius 2016:204). 리콥르는 제도나 관습이 없는 순수한 활동을 주장하지 않고, 문화 안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과제의 영속성을 주장한다(Helenius 2016:203). 리콥르의 주장을 퍼스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과제는 문화 안의 해석 행위주체가 문화 기호의 무한한 해석과정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타자로서의 자아”를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활동의 결과와 효과는 조건절의 미래 시제를 갖는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조건에서 타자와 타자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기호 해석 활동에서 타자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퍼스 기호학적 접근에서 기호 활동은 숙고하는 주체가 역동적인 대상과 맺는 관계에서 사고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상징이 성장한다. 하지만 상징의 해석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고 또는 일반적 기호이지만, 그 사고는 감정과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 감정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주제로 별도로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 해석체가 상식, 본능, 감정과 연관된 정서주의(sentimentalism)¹²⁾ 및 이타주의(altru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자

University Chicago Press, 1990. pp. 27-39)를 참고하라.

- 12) 퍼스 기호학에서 감정과 정서에 관한 연구 주제는 방대하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참고할 만한 자료는 사번(David Savan)의 감정의 기호학에 관한 연구로서 “Peirce’s Semiotic Theory of Emotion”(In Kenneth L. Ketner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Charles S. Peirce Bicent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Lubbock: Texas Tech Press. 1981, pp.319-333)이며, 후크웨이(Christopher Hookway)의

아통제의 개념과 연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세미오시스 과정은 이론적인 모델로서 설명되었고, 문화적 맥락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의 주제들을 다루는 실용적 관점을 요구하며, 이는 주체와 타자를 포함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고찰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기호 해석 활동에서 자아와 타자를 충돌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여기며, 연대하고 협력하여 상징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대화적 관계에 주목한다. 해석은 서로 다른 두 개체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조건을 전제하며, 이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퍼스의 이타주의(altruism)개념은 논리가 사회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EP 1:149). 퍼스는 논리는 그 사람의 관심이 무한한 공동체의 관심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퍼스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EP 1:149)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퍼스의 이타주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전체 세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그의 추론에서 비논리적이다.”(EP1:149).

퍼스의 이타주의는 더 중요하게는 논리적 정서¹³⁾(logical sentiment), 즉, 사랑, 믿음, 희망에 기초한다(EP1:150). 논리적 정서에 기반한 해석공동체는 행위주체로서의 자아가 “행동과 숙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과 숙고가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는 행위주체의 합리적인 자아통제”를 포함하는 합리성으로 특징지어진다(Hookway 1997:202). 논리학을 기호학으로

“Sentiment and Self-control”(In Jaqueline Brunning & Paul Forster, eds., *The Rules of Reason: The Philosophy of Charles Sanders Peir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 201-222.)은 정서와 자아 통제에 관한 연구이다.

13) 퍼스가 말하는 논리적 정서는 기독교의 트리오 곧 사랑, 믿음, 소망의 정서와 상응한다. 즉, 사랑(charity)은 무한한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고, 믿음은 이러한 관심이 최고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이며, 희망은 논리에 요구되는 지적 활동이 무한하게 지속되리라는 것이다(EP 1:150).

간주하는 퍼스의 후기 이론은 점점 더 이러한 합리적인 자아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본능과 감정이라는 점을 주장한다(Hookway 1997:202).

추론 과정에서 감정과 본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한 감정의 논리성(logicality)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퍼스는 감정을 인지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그의 인지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감정은 주어를 가진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것 또는 저것이 아주 불쾌하다거나, 아주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느낄 때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EP1: 43). 결과적으로 사고 대상에 대한 인지의 효과로서 느낌이 발생하며, 이러한 느낌은 감정(emotion)에 대한 해석으로서 다른 어휘로 해석/번역되어 표현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감정적 해석체라고 할 수 있다.

퍼스의 실재 개념¹⁴⁾은 본질적으로 공동체(COMMUNITY)의 관념, 즉 “명확한 한계없이 지식의 무한한 증가가 가능한”공동체의 관념을 포함한다(EP1:52). 문화를 해석하는 일은 기호에 재현된 문화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인지적 설명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에 기초하고, 이를 새로운 어휘로 번역하여 표현하며, 이러한 느낌의 사고를 행동(신체적, 정신적)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는 상징을 매개로 소통하는 문화적 존재에게 일상의 삶에서 무한하게 일어난다. 합리적인 자아통제를 통한 해석 행위주체로서의 자아는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자를 인식하고, 더불어 자아 안에 타자를 인식하면서 자아와 타자는 상호인정에 기초한 해석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와 타자는 공동체의 관념을 포함하는 실재/진리를 추구하면서 문화를 돌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이인칭 관점과 참여적 관점을 통해 “목적론적인” 대화적 기호 과정에 존재한다.

14) 퍼스의 실재 개념은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66-1308)에서 온 것으로, “실재는 당신 혹은 나 혹은 특정한 어떤 이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된다(Cornelis de Waal, 『퍼스 철학의 이해』, 이윤희 역, 개정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p.207).

참고문헌

-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2005. 4장.
- 이윤희, 『찰스 샌더스 퍼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86~94쪽.
- Charles S. Hardwick ed., *Semiotic and Signific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Bloomington, 1977. p.111.
- C. Hartshorne & P. Weiss (eds.),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Vol. 1-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eference to Peirce's papers will be designated CP followed by volume and paragraph number.]. 1932-1934.
- Christopher Hookway, "Sentiment and Self-control". In Jaqueline Brunning and Paul Forster, eds., *The Rules of Reason; The Philosophy of Charles Sanders Peir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 201-222.
- _____, *Truth, Rationality, and Pragmatism: Themes from Peirce*. Oxford: Clarendon Press. 2002.
- Cornelis de Waal, 『퍼스 철학의 이해』. 이윤희 역. 개정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pp.146~148.
- David Savan, "Peirce's Semiotic Theory of Emotion" In Kenneth L. Ketner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Charles S. Peirce Bicent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Lubbock: Texas Tech Press. 1981. pp.319-333.
- Douglas Greenlee, *Peirce's Concept of Sign*. The Hague and Paris: Mouton. 1973.p.117.
- Frederik Stjernfelt, *Diagrammatology: An Investigation on the Borderlines of Phenomenology, Ontology, and Semiotics*: Springer. 2007.
- James J. Liszka,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개정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pp. 70~71.
- Jon A.Schmidt, "Peirce's Evolving Interpretants", *Semiotica* 246. 2022, pp. 211~223.
- Lorraine Daston, *Rule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p.21.
- Nathan Houser & Christian Kloesel, ed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1.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Reference to Vol. 1 of The Essential Peirce will be designated EP 1.]

-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90, pp. 27-39.
- _____, 『번역론』, 이향, 윤성우 역, 철학과 현실사, 2006, pp. 114~157.
- Richard Kenneth Atkins. *Charles S. Peirce's Phenomenology: Analysis and Conscious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206.
- The Peirce Edition Project, ed.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Reference to Vol. 2 of The Essential Peirce will be designated EP 2.]
- Timo Helenius, *Ricoeur, Culture, and Recognition: A Hermeneutics of Cultural Subjectivity*. Lanham; Boulder; New York; London: Lexington Books. 2016. p.202.
- Thomas Nagel,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83. No 4, 1974, pp. 435~450.
- Vincent M. Colapietro, *Peirce's Approach to the Self: A Semiotic Perspective on Human Subjectiv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Chap.5.
- _____. "Semiosis and Subjectivity: A Peircean Critique of Umberto Eco".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xxxv. No. 3. 1987, pp. 295~312.

Dialogical Semiosis as a Model of Interpretation of
Culture in the 21st Century:
Peirce's Concepts of Self and Interpretant

Lee, Yun-He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he self in the 21st century from Peirce's semiotic perspective. The inquiry will be understood as a semiotic process of writing "a drama of possibility" by structuring the experience of culture. In other words, it is a process of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culture, which results in those applied to the self. This is possible because culture as symbol and habit which is to be interpreted from the objective perspective will form the self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Culture and the self are so connected by symbol and habit that they grow together in a reciprocal way based on a dialectic relation. Applying this hypothesis, the paper inquires into the possibility of dialogical semiosis as a model of interpretation in 21st century culture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self as an "agent" and the function of interpretant in unlimited semiosis. To do this, first I look at the process of cultural contextualization of indeterminate quality as an object of experience based on perceptual experience and the concept of the self through Peirce's concept of hypostatic abstraction. Second, I examine Peirce's concept of sign which is characterized by triadic relation of sign-object-interpretant in the unlimited semiotic process in which the triadic relation of emotional-energetic-logical interpretant is operative. Based on this, I consider connecting Ricoeur's theory of translation with Peirce's concept of semiosis in cultural context, thus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other as members of community through the self as interpreting agent. Based on this, I show the possibility of dialogical semiosis as a model of interpretation of culture and draw the conclusion that "teleological" semiosi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miotic activity of value-making on the virtue of culture care and mutual recognition by means of dialogical semiosis modeling, this process itself then becoming a purpose.

Keywords : Logical interpretant, Interpretation of culture, Contextualization, Translation, Triadic relation, Symbol, Selfhood, Agent

투고일: 2023. 07. 17./ 심사일: 2023. 08. 12./ 심사완료일: 2023. 08. 14.